

‘리그 선두’ 광주도시공사 女핸드볼, 팀 새역사 쓴다

**5일 경남개발공사와 2R 첫 경기
5연승·8경기 연속무패 기록 도전
공격 실책 줄이는 게 승패 관건
경남전 대비 맞춤형 훈련 구슬땀**

‘리그 선두’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안방에서 팀 새역사 작성에 도전한다. 최근 4연승과 함께 개막 이후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간 광주도시공사 선수단은 안방에서 펼쳐지는 2라운드 첫 경기인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팀 최다 연승과 최다 무패 기록을 달성하겠다는 각오다.

오세일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시공사는 오는 5일 오후 2시 광주 빙글체육관에서 경남개발공사와 2022-2023 SK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부 2라운드 첫 경기를 갖는다.

광주도시공사는 지난달 29일 광주빙글체육관에서 열린 부산시설공단과의 1라운드 마지막 경기에서 28-26으로 이겨 4연승과 함께 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렸다.

이로써 광주도시공사는 2일 현재 6승 1무, 승점 13으로 단독 선두를 지키고 있다.

광주도시공사 선수단은 올시즌 마지막 홈 경기인 이번 경남개발공사전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지역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경남개발공사전은 광주도시공사에게 의미있는 일전이다. 이번 경남개발공사전에서 승리하면 ‘팀 최다연승과 팀 최다 무패 기록 경신’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쓴다.

2010년 창단한 광주도시공사의 최다 연승 기록은 지난 2021~2022시즌 3월 4

일 부산시설공단전(21-18승)부터 3월 18일 컬러풀대구전(32-19 승)까지 거둔 5연승이다. 하지만 경기를 치르지 않고 몰수승을 거둔 1경기가 포함됐다. 삼척시청이 코로나 19 악재로 3월 13일 경기 출전을 포기해 행운의 1승을 올렸다.

최근 4연승 중인 광주도시공사가 이번 경남개발공사를 꺾으면 자력으로 창단 첫 5연승을 달성하게 된다.

이율리 지난달 4일 경남개발공사와의 개막전부터 7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온 광주도시공사는 팀 최다 무패 기록을 ‘8’로 늘리게 된다.

광주도시공사 선수단은 이번 맞대결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 있다. 지난 시즌 경남개발공사와의 상대 전적에서 2승 1패로 앞섰고, 이번 시즌 1라운드 맞대결에서도 28-25로 승리한 바 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경남개발공사

는 이번 시즌 1승 1무 5패, 승점 3점으로 7위에 머물러 있지만 지난해 전국체전 8강전에서 광주도시공사에게 패배를 안긴 팀이다. 또 이번 시즌 첫 맞대결에서 광주도시공사에게 졌지만 후반 초반까지 대등한 경기력을 펼쳤고 막판 끈질기게 추격하는 힘을 보여줬다.

이번 맞대결의 승부 관건도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공격 찬스 때 실책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

오세일 감독도 선수들에게 경기내내 공격 집중력 유지를 강조하며 지난달 31일부터 광주 빙글체육관에서 경남개발공사전을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상대 주득점원인 김소라(피봇)와 최지혜(라이트백)에 대한 맞춤형 수비 훈련과 상대 골키퍼 오사라를 뚫는 솜씨 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오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김지현과 정

현희의 활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두 선수의 활약 여부가 경기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 1라운드 7경기 결과 김지현이 롭타임으로 땀 때 경기를 쉽게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에 신인 김수민의 활약 여부도 승부 관건이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4주 만에 경기에 나서는 김수민이 제 기량을 발휘한다면 전력의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세일 감독은 “올해 지키는 입장이어서 선수들이 조금씩 승리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만,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김수민이 부상에서 돌아와 전력 플러스 요인이 됐다”며 “이번 경남개발공사전이 광주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인 만큼 좋은 결과로 장식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최동환 기자

광주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

**83명... 광역지자체 최초 시행
생활체육 서비스 질 향상 기대**

광주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시행한다.

광주시는 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시행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서명식은 강기정 시장과 자치구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대표가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호봉제 도입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은 광주가 광역지자체 최초다. 광주지역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83명으로, 이들은 각 자치구에 배치돼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서 시민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됐

으나, 단일임금제 탓에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민선 8기 들어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처우 개선을 지속 건의하자, 광주시가 전격 수용하면서 호봉제로 전환하게 됐다.

광주시는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 도입으로 처우가 개선됨에 따라 생활체육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체육지도자 호봉제를 시행함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활발하게 생활체육 지도에 나설 수 있게 됐다”며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은 만큼 시민 건강을 책임지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공중볼 향해

2일(한국시간) 프랑스 리옹 그루파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2023시즌 프랑스 리그 1 올랭피크 리옹과 스투드 브레스트와의 경기에서 양팀 선수들이 공중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날 경기는 0-0으로 끝났다.

AP/뉴시스

윤리중 이현서, 광주양궁협회 최우수선수상

광주시청 최승실 최우수감독상

광주 윤리중 이현서가 2022년 광주 양궁을 빛낸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이현서는 2일 광주시체육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광주시양궁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이사회 및 2022년 광주시양궁협회 유공자 시상식에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이현서는 지난해 제51회 소년체전에서 개인전, 단체전, 60m, 50m에서 4관왕에 오르며 광주 양궁을 빛냈다.

광주시청 최승실 감독은 최우수감독상을, 광주체고 여자 양궁팀은 최우수단체상을 각각 받았다.

광주양궁은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2022 월드컵 2차 대회에서 안산(광주여대)이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고, 월드컵 4차, 월드컵 파이널 대회에서 개인전·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다. 제10회 전국체전에서는 오예진(광주여대)의 4관왕 활약에 힘입어 역대 최고 득점인 2천432점으로 사·도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은 “올해는 광주에서 제34회 전국 남녀 초등학교 양궁대회를 시작으로 제41회 대통령기 전국남·여양궁대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2024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제5회 협회장기 추계 생활체육 양궁대회까지 총 5회의 전국대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모든 대회가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 돼 광주양궁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협회, 지도자, 선수 모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오는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향해 이승윤(남구청), 기보배·최민선(광주시청), 최미선(광주은행), 안산·오예진(광주여대) 등 6명의 빛고를 공사들이 힘찬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재적 대의원 14명이 전원 참석해 협회 2022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의 건을 의결했다. 또 2023년 사업계획 보고도 진행됐다.

최동환 기자

광주장애인선수단, 전국장애인동계체전 선전 다짐

**10~13일 강원 일원서 개최
선수단 4개 종목 30명 출전**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광주 선수단이 선전을 다짐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회는 2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광주선수단 결단식을 갖고 4일간의 열전에 돌입할 선수단을 격려했다.

오는 10~13일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장애인동계체전에 광주시 선수단은 빙상, 컬링,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등

4개 종목 30명의 선수단(선수 13·지도자 8·임원 9명)이 참가한다.

주목할 만한 선수로는 김세정(지체장애)이다. 김세정은 지난해 동계체전에서 1개(여자 좌식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7km)와 동 3개(여자 좌식 바이애슬론 스프린트 4.5km·크로스컨트리스키 3km·크로스컨트리스키 4.5km)를 목에 걸었다.

빙상 김진영(지체장애)은 여자 1000m 성인부에서 금메달이 기대된다. 김진영은 지난해 동계체전에서 여자 500m 은메달을 획득했고, 1000m에서 금메달을 예상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여파로 경기

가 취소돼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해 상반기 결성된 청각장애 여자 컬링팀은 이번 동계체전에 첫 출사표를 던졌다. 광주 청각장애 여자 컬링팀은 6일 오전 9시 강릉컬링센터에서 겨울스포츠의 보고장인 강원 팀과 맞붙는다.

한상득 광주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지역의 여건상 동계종목의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회 출전을 위해 땀 흘려 훈련한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한다”며 “동계종목 육성을 위해 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김민섭·한효민, 대한수영연맹 우수선수상

수영 국가대표 김민섭(20·여수충무고)과 수구 국가대표 한효민(26·전남수영연맹)이 2022년 한국수영을 빛낸 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2일 전남수영연맹에 따르면 김민섭과

한효민이 지난달 3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2층 런던홀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수영연맹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영·수구 부문에서 각각 우수선수상을 받았다.

김민섭은 2019년에 이어 2022년 2회

연속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국가대표 발탁돼 남자점영 2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 한국 수영을 세계에 알렸다.

한효민은 2019년부터 꾸준한 기량으로 수구 대표팀 주전으로 맹활약, 2022 아시아수구선수권대회에서 7경기 중 11득점을 올렸다.

최동환 기자